

I. 통상현안정보

■ 뉴질랜드의 관세인하 계획 및 對韓교역에 미치는 영향

□ 뉴질랜드 관세제도 개요

- 뉴질랜드 산업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공산품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 싱가포르 및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 등 개도국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GSP)제도를 통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관세 인하계획 및 보류

- 과거 국민당 정부 시절에는 자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가 국민들의 복리와 경제적 후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년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완전 무역자유화를 단행하기로 한 바 있음. 그러나 99년 12월 집권한 현재의 노동당 정부는 수입관세 인하 및 철폐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률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2005년까지 수입관세를 199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 수입관세 인하 재추진

- 수입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뉴질랜드는 주요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인하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 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따라서 뉴질랜드는 2003년 10월1일부로 공동으로 2006년부터 고율 관세 부과품목인 의류와 신발, 직 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하계획(tariff policy for post 2005)을 확정, 발표하였음.
- 동 인하계획에 따라 1999년 이후 6년간 동결되어 온 뉴질랜드의 수입관세율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현재 17~19%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의류, 신발 및 카펫 등에 대한 수입세율이 2006년 7월 1일부터 인하되게 되며 2009년 7월 1일부터는 10%까지 추가 인하되게 되었음. 그 밖의 수입관세 부과대상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도 2008년 7월까지 5%로 인하되며 2009년까지도 인하된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유일하게 의류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별관세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종가세로 환원되게 됨.

< 수입관세 인하계획 주요내용 >

현행관세율	관세인하계획			
	2006.7.1	2007.7.1	2008.7.1	2009.7.1
17-19	17	15	12.5	10
10-12.5	10	7.5	5	5
5-7.5	5-7.5	5-7.5	5	5

(자료원:뉴질랜드 정부(www.beehive.govt.nz))

[對韓교역에 미치는 영향]

□ 개도국 특혜관세에 미치는 영향

- 관세인하 프로그램 중 한국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로는 개도국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GSP특혜관세제도를 들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 뉴질랜드의 GSP수혜 국가로서 일반 관세율보다 소폭(일반관세율이 7%인 경우 5.5% 적용)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최빈국과 인근 태평양 국가들에게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관세인하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양자간 차이가 미미해 지거나 무관세가 될 경우 동등해져 GSP특혜관세 제도의 이점은 사라지게 되어 실익도 없어지게 됨. 또한 GSP특혜관세의 경우 졸업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수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뉴질랜드의 70%를 넘어설 경우 혜택이 부여되지 않게 되므로 한국의 경우 조만간 졸업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러한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관세인하에 따라 일반관세율과 차이가 좁혀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수입자유화율이 95%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도 미미하기 때문임.

□ 주력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대뉴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플라스틱 등 화학 제품, 자동차, 철강, 타이어, 종이 등 공산품이며 이들 품목에 대한 뉴질랜드 관세 는 대부분 무관세이며 타이어, 철관, 지게차, 알루미늄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관세가 인하될 경우 품목별로 다소 상이하나 뉴질랜드와 FTA등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제품들과의 경쟁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상당 품목 은 가격 경쟁력 강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즉, 뉴질랜드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인근 국가인 호주를 비롯,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관세 협정을 통해 대부분의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그 동안 한국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 왔던 요인이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 관세인하 조치로 대부분 7% 선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면 관세차이가 좁혀지게 되어 GSP 수혜국가로 5.5%의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됨.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 대두

- 뉴질랜드는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 칠레, 홍콩, 대만, 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고 WTO Round를 통해서도 관세인하 추진에 앞장서고 있음.
- 따라서 FTA의 가속화에 따라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 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 관세상의 불이익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음.

(문의처 : 오클랜드무역관 김군기 pioneer@kotra.or.kr)